

소 낙 비

번개, 뇌성, 왁자지근 뚜다려
머—ㄴ 都會地에 落雷가 있어만싶다.

벼루짱 얹어논 하늘로
살같은 비가 살처럼 쏘다진다.

손바닥 만한 나의庭園이
마음같이 흐린湖水되기 일수다.

바람이 뽕이처럼 돈다.
나무가 머리를 이루 잡지 못한다.

내敬虔한 마음을 모셔드려
노아때 하늘을 한모금 마시다.

一九三七、八月 九日.

소 낙 비

번개, 뇌성, 왁자지근 뚜드려
머—ㄴ 도회지에 낙뢰가 있어만 싶다.

벼룻장 얹어놓은 하늘로
살 같은 비가 살처럼 쏟아진다.

손바닥만한 나의 정원이
마음같이 흐린 호수되기 일쑤다.

바람이 뽕이처럼 돈다.
나무가 머리를 이루 잡지 못한다.

내 경건한 마음을 모셔들여
노아 때 하늘을 한 모금 마시다.

1937. 8. 9.